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신체비교,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 연구
-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

위은하*¹⁾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differences in body comparis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social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mong adolescents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by sex and age

Wee, EunHah*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ny differences were found in body comparis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social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Gwangju and Jeolla province. It was conducted by a self-report survey of 598 male and female students in eighth and eleventh grades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South Korea. The collected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χ^2 test, K-means cluste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Duncan's grouping using SPSS/PC WIN 19.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were as the following: Adolescents perceived and internalized more highly than the common level the socialcultural value toward appearance, especially for female, and by age, juniors in high school than in middle school. Social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epted type', 'internal type', 'aware type', and 'unaccepted type'. Students who were classified as 'accepted type', and 'internal type' showed lower level of body satisfaction and compared their bodies more often with others.

1) 교신저자: Wee, Eun Hah, 77 Yongbong-ro,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82-62-530-2523, Fax: 82-62-530-2529, E-mail: weh@jnu.ac.kr

They also actively receive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refore, they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and functional garments. They also worked hard to reduce their weights just to show off to other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education programs to protect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the socialcultural distortion to appearance.

Key words: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 외모(appearance), 신체비교(body comparison), 신체만족도(body satisfaction),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청소년(adolescents)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외모는 취업, 대인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단서로 인식되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 다이어트, 몸만들기 운동 등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남녀 10명 중 9명은 외모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의란성쌍둥이’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사회 전반에는 외모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edaily, 2014, 09, 20). 미국 이그제미너(Examiner)지는 국제미용성형협회(ISAPS)의 2011년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을 인구대비 성형건수가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하였다(Chosun.com, 2013, 02, 01). 지금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형의존과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현상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인터넷, TV, 잡지 등의 시각매체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청소년들은 현실적이기 보다 매우 감각적이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감각적이고 왜곡된 외모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인식하고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와 비교하고 불만족해 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KOSIS(2012)설문에 의하면 청소년(15~18세)의 고민 중 ‘공부(53.1%)’ 다음으로 ‘외모(15.1%)’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개념을 형성하지 못한 신체적 외모를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 옷차림과 머리모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거나 부정적인 평가는 가치관, 감정, 행동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자기개념이나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모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왜곡된 마른체형의 연예인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여 하게 하여 자신의 신체의 비교대상으로 삼고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게 하거나 심각한 신체불만족이나 섭식의 제한이나 폭식 등의 극단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야기(Kim & Han, 2008)시키기도 하고 있다. 사회적 비교로부터 비롯되는(Fisher 등, 200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섭식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hompson & Heinberg, 1999; Chung 2013; Lee, 2013; Kim & Han,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여성위주로 진행되어오다 최근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대학생과 성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발달 특성상 사회문화적 영향을 쉽게 받아 외모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는 남녀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성별과 연령(학교급),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신체비교 및 만족도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이 지역의 청소년을 이해하고 생활지도나 가정교과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남녀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 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요인은 무엇이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특성차이가 있는가?
- 나. 신체비교, 신체만족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특성차이가 있는가?
- 다. 외모관리행동의 구성요인은 무엇이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특성차이가 있는가?
- 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유형은 무엇이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유형 간에 신체비교, 신체만족의 차이는 어떠한가?
- 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유형 간에 외모관리 행동에는 어떤 특성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시각매체의 증가는 신체적 외모의 매력에 대한 가치를 더 부각시키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여져야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한 개인을 매력적이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범주화하는 경향(Gulas & Mckeage, 2000)이 있는데 Thompson과 Hirschman(1995)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관점은 내면화되고 문화적으로 강화되어 개인의 신체를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란 매스미디어를 통해 부각된 신체적 매력성과 사회적 이상에 관한 여러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내면화시켜 그 사회의 신체적 표준에 접근하도록 하게하는 마음가짐이나 취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Heinberg 등(1995)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SATAQ(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개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awareness)과 내면화(internalization)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의복행동 및 외모관리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Heinberg & Thompson, 1995; Lee, 2013; Lee & Han, 2008; Park, 2012; Thompson & Heinberg, 1999). Heinberg와 Thompson(1995)은 10분간의 대중매체를 통한 날씬한 외모의 비디오 관람을 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체형에 대한 불만, 우울, 분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Lee(2013)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 청소년은 더 낮은 신체존중감을 지니며 의복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 친구들과 유사한 의복행동을 하면서도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했다. Park(2012)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요인보다 내면화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더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Lee(2008)는 청소년은 사회문화적 외모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사춘기의 여학생은 성적발달과 함께 체지방이 늘어나는데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고 날씬해야한다는 사회문화적 기대에 적응해야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신체상에 불만족하고 우울해 하는 경험이 남학생보다 높다(Holsen 등, 2001)고 하였다. 또한 Cho와 Gho(2001)에 의하면 사춘기인 고등학교시기에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표현 역시 강하게 표현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요인에는 역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여중생도 부모나 친구보다 매스미디어가 외모평가에 미치는 영향(Lee & Gho, 2005)이 크다고 볼 수 있다. Lee와 Park(2008)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과 내면

화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왜곡된 섭식태도 및 행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우울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외모에 대한 긍정감은 자존감을 높여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호감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녀야 되는 것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신체상(Dobson & Block, 1992)이다. 신체에 대한 긍정감은 자아존중감과 연결되어 있어 자신에 대한 긍정감을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자기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신체와 외모에 집중하게 되는데(Hansen & Hansen, 198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 사회적 비교도 적게 한다(Lennon, 1999).

신체비교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Van den Berg 등, 2007)으로 자신의 외모가 소속집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가늠하게(Heinburg & Thompson, 1992) 되므로 신체비교는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에게서의 신체비교는 스스로를 의식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행동(Botta, 1999)이며 일상적인 대중매체의 영향뿐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또래와 수시로 신체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고, 신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 가치나 행동의 준거(Furman & Buhrmester, 1992)가 되므로 또래와의 비교가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추론된다.

신체비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의 시각적 자료를 통해 강화되는데 수용적 심리상태가 강할수록 신체적 외모에 민감해져서 주변사람들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경향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Schutz & Wertheim, 2002; Chung, 2013). 또한 신체비교는 대중매체뿐 아니라 또래 등의 주변타인과 이루어지며

Crocker와 Major(1989)는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되어 있는 대상과의 비교보다는 비슷한 타인과의 비교가 자아 존중감을 더 유지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신체적 외모만족도에 대해 Hwang과 Kim(2006)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Choo(2002)는 신체만족도는 객관적인 신체치수 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사회문화적인 기준에 근거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해 여자는 TV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 Kwon, 2010)고 하였으며, Park과 Chung(2011)은 신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신체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13)의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은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내면화 하는 경향이 높아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청소년의 외모관리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의복, 헤어, 피부, 성형, 다이어트, 운동 등에 관심을 갖고 외모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Lennon 등(1999)은 사회비교이론(Festinger, 1954)에 기초하여 외모와 관련된 미적 이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외모를 비교하게 되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장급등과 2차 성징 등을 경험하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한 또래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Brown, 2005)가 커

지면서 또래관계를 연결 유지시켜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친구들과 비슷한 외모관리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외모의 표현을 동년배 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Lee(2003)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을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정요구도가 높고 신체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Park과 Chung(2011)은 신체만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한다고 하였다. 또한 Sim과 Gho(1997)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유니섹스 의복착용 등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Yoon과 Wee(2010)는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이 학교적응과 관련 있으며 스타일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관리, 청결관리로 분류되었다고 하였다. Lee(2013)는 외모관리행동을 의복, 체중, 피부, 헤어, 성형으로 분류하여 외모의 도구성에 대해 수용의지가 큰 경우라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수행의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된 외모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Ahn(2007)은 사회적 표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할수록 헤어 및 피부관리, 체중조절, 성형수술의도와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높게 한다고 했으며 Kim과 Hwang(2008)은 남녀 모두 사회문화적으로 압력이 심하고 미에 대한 고정관념이 내면화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Hwang(2007)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외모관리행동뿐 아니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대학생이나 성인들의 외모관리행

동에 비해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은 잠재성을 갖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낮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경험과 마음가짐이나 입장을 보여주는 행동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문화적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와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여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학년(2학년) 학교유형(남녀공학),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을 고려하여 편의표집 하였다(Table 1). 질문지법에 의해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되었으며 질문지는 630부를 배부하여 612부를 회수하였고 자료가 미비한 14부를 제외한 598부의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한 결과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인 변인으로 성별, 학교급, 학년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문항, 신체비교 문항, 신체만족도문항, 외모관리행동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측정도구는 Heinberg 등(1995)에 의해 개발된 SATAQ 척도를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Song & Lee, 2009)의 결과를 토대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otal	Middle School(8 th grade)		High School(11 th grade)	
	Female	Male	Female	Male
598	126(21.1%)	106(17.7%)	183(30.6%)	182(30.4%)

측정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12문항을 선정하여 수정하였으며 요인 값이 분산된 3요인을 제외하고 9문항을 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평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여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1~.79였다(Table 1.).

신체비교는 청소년에게 자주 비교하는 신체부위를 적게 한 후 빈도가 가장 높은 부위인 키, 체중, 몸매, 얼굴, 신체부분을 선정하였으며 얼마나 자주 친구와 비교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물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다(Table 3.).

신체만족도는 얼굴, 피부,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전체적인 이미지의 만족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외모관리행동의 측정도구는 Yoon & Wee(2010)가 사용한 24문항을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요인값과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에는 17문항(Table 5.)을 사용하였고 전체 문항신뢰도(Cronbach's α)는 .57~.77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PC WIN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Cronbach's α)분석, varimax-회전 요인분석, χ^2 검증, K-means군집분석, t-test, ANOVA(일원변량분석), Duncan's grouping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멋진 몸매의 연예인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런 멋진 몸매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된다.”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 같은 몸매였으면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n=598)

Factors	Items	Factor loadings	% of variance	Cronbach's α
Internalization	- When I see good looking entertainers in TV, I wish to have a good looking.	.835	31.07 (31.07)	.797
	- I wish to have a good looking body like swimsuit model.	.818		
	- When I see a person calling 'Diesel', 'Best face', I want to be one.	.759		
	- Even if I'm not good at studying I want to have a look like Kim, Tae-Hee(girl), Won, Bin(boy)	.619		
	- I think that cosmetic surgery is a valuable for attractive appearance	.570		
Awareness	- I think that appearance is important condition when I have a friend.	.791	23.29 (54.36)	.714
	- I think that person with good looks has more opportunities of a good chance.	.755		
	- I get discriminative treatment because of being fat.	.618		
	- It is important to have attractive looks for success in our society.	.605		

하고 바란다.” “요즈음 흔히 말하는 ‘몸짱’이나 ‘얼짱’인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내면화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된 ‘내면화’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친구를 사귄 때 외모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특별대우를 받을 때가 많다.” “똥똥하면 차별대우를 받을 때가 많다.”와 같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인식’ 요인이었으며 2요인의 총설명력은 54.36%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에 따른 평균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Table 3).

먼저,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요인 중 내면화요인의 평균은 3.32, 인식요인의 평균은 3.28로 보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대전지역 남녀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Lee(2013)의 내면화 요인 3.21과 인식요인 3.14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평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내면화요인(p<.001)과 인식요인(p<.05)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내면화요인에 있어 여학생들은 평균 3.48, 남학생들은 3.15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가치관이 내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인식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평균은 3.33, 여학생들의 평균은 3.22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3.10, 여학생 3.17로 여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식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내면화요인과 인식요인 모두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연령그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4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내면화 요인은 중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순으로 높아졌고 인식요인에 있어서는 남·중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순으로 높아졌다.

위와 같이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여 인식하고 내면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그리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내면화된 경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식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체적 외모에 열중하는 경향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다고 한 Lee(2013), Cho & Gho(2001)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요인에 있어 남자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 Mean analysis resul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ccording to general factor

(n=598)

General factor	Total	Sex			Age group			Sex * Age group				F
		Male (n=289)	Female (n=309)	t	Junior (n=233)	High (n=365)	t	Male junior (n=107)	Female junior (n=126)	Male high (n=182)	Female high(n=183)	
Internalization	3.32	3.15	3.48	25.78***	3.20	3.40	5.446**	2.99 A	3.37 BC	3.25 B	3.55 C	12.52**
Awareness	3.28	3.33	3.22	3.67*	3.17	3.34	4.625**	3.20 A	3.14 A	3.41 B	3.27 AB	4.20**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Table 4. Comparison and satisfaction of body

(n=598)

Factors	Items	Cronbach's α
Body comparison	1. I compare my heights with my friends' 2. I compare my weight with my friends' 3. I compare my figure with my friends' 4. I compare my face with my friends' 5. I compare parts of my bodies with my friends'.	.851
Body satisfaction	1. Skull 2. Skin 3. Neck-shoulder 4. breast 5. Waist 6. Hip 7. Legs 8. Silhouette	.806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2. 청소년의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

청소년의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된 문항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 그리고 Table 5와 같았다.

신체비교는 키, 체중, 몸매, 얼굴, 신체 각 부분을 친구들과 어느 정도 비교하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2.79였으며 외모의 만족도는 얼굴형, 피부,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몸매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2.89였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신체비교를 보통보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반면 외모의 만족도는 보통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른 또래와의 신체비교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나 중학교 남학생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 신체비교를 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한 후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만족하지 못하였고 다음으로 여자중학교 학생이

Table 5. Mean analysis of body comparison and body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factor

(n=598)

General factor	Total	Sex		t	Age group			Sex * Age group				F
		Male (n=289)	Female (n=309)		Junior (n=233)	High (n=365)	t	Male junior (n=107)	Female junior (n=126)	Male high (n=182)	Female high (n=183)	
Body comparison	2.79	2.75	2.82	1.18	2.73	2.83	2.39	2.60 A	2.83 B	2.84 B	2.82 B	2.37*
Body satisfaction	2.89	3.07	2.73	45.70* **	2.94	2.86	2.48	3.09 C	2.83 B	3.06 C	2.67 A	17.13** *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생은 모두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정리하면 청소년들은 신체비교를 보통이하로 신체비교를 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중학교 남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신체를 덜 비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체만족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의 신체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3. 청소년의 외모관리 행동

청소년의 외모관리 행동의 구성요인은 Table 6과 같이 4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은 ‘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가끔 사용 한다’, ‘나는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 성형이나 수정을 한 적 있다’, ‘나는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꿀 마음이 있다’ 등 성형과 보정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성형과 보정’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16.16%였다.

요인 2는 ‘나는 학교에서 머리손질을 3번 이상 한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옷이나 용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등의 유행을 추구하고 외모에 신경에 예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유행추구’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15.74%였다.

요인 3은 ‘나는 살을 빼기 위해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살찌는 것은 먹지 않는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등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내용으로 구성되어 ‘다이어트’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14.22%였다.

요인 4는 ‘나는 손과 발은 늘 청결하게 유지한다’, ‘나는 교복을 항상 깔끔하게 관리한다’,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품(스킨, 로션)을 바른다’ 등으로 구성되어 ‘피부와 청결’의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9.99%였다. 4요인의 전체설명력은 56.11%였다.

Table 6. Factor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n=598)

Factors	Items	Factor loadings	% of variance	Cronbach's α
Plastic surgery & reforming	- I use cosmetics that adults use.	.683	16.16 (16.16)	.743
	- I have had a plastic surgery to make my appearance special.	.680		
	- I'll change the appearance through cosmetic surgery.	.658		
	- I always have a mirror in front of my desk.	.654		
	- I wear a functional undergarments for slim looks.	.610		
Following the fashion	- I remodel my hair in school more than 3times a day.	.743	15.74 (31.91)	.754
	- I have most of clothes and supplies that is popular between friends.	.682		
	- If the outfit is not good, I put it on nerves.	.653		
	- I check my appearance all the time.	.648		
	- I violate the school rules to be pleased with my hair.	.620		
Diet	- I exercise everyday to lose weight.	.851	14.21 (46.12)	.773
	- I never eat anything that makes me fat even if I like it.	.806		
	- I do diet to look good to others rather than my health.	.715		
	- I have lot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diet.	.598		
Skin and clean	- My feed and hands always maintain clean.	.795	9.99 (56.11)	.570
	- I always have my school uniform cleaned.	.782		
	- I use basic cosmetics(skin, lotion) to control my skin.	.452		

이 결과는 ‘스타일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관리’ ‘청결관리’의 5요인으로 구성되고 이 요인 중 ‘외모불만’을 제외한 4요인과 비슷한 Yoon & Wee(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른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평균을 살펴보면 피부와 청결요인, 유행추구, 다이어트, 성형과 보정의 순으로 낮아졌다. 청소년들은 피부와 청결은 보통이상(3.40)으로 하고 있으며 유행추구는 보통수준(3.01) 그리고 다이어트(2.20)와 성형과 보정은 보통보다 하지 않는 것(1.89)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는 ‘성형과 보정’ ‘유행추구’ ‘다이어트’ ‘피부와 청결’의 4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관리행동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그룹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피부와 청결’을 제외한 3요인 즉, ‘성형과 보정(p<.001)’ ‘유행추구(p<.001)’ ‘다이어트(p<.01)’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형과 보정’ ‘유행추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다이어트’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수준이 아주 낮아서 나타난 결과였다. 피부와 청결에 대한 관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그룹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한 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4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성형과 보정요인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낮아졌다. 즉 여자 고등학생은 성형과 보정속옷착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었다. 유행추구요인은 다른 그룹에 비해 중학교 남학생들이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다이어트 요인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낮았으며 고등학교 남학생이 중학교 남학생보다 다이어트 요인 점수가 더 낮았다. 즉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피부와 청결요인에 있어서는 역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았고 고등학교 남학생이 중학교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은 성형과 보정요인, 유행추구요인, 다이어트 요인, 피부와 청결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이 스타일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관리, 청결관리로 구성되었다고 한 Yoon과 Wee(2010)의 연구와 그리고 의복, 체중, 피부, 헤어, 성형으로 분류한 Lee(2013)의 연구와 부분 일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외모관리 중 피부

Table 7. Mean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factor

(n=598)

General factor Appearance managements	Total	Sex			Age group			Sex * Age group				F
		Male (n=289)	Female (n=309)	t	Junior (n=233)	High (n=365)	t	Male junior (n=107)	Female junior (n=126)	Male high (n=182)	Female high (n=183)	
Plastic surgery & reforming	1.89	1.59	2.18	106.59***	1.72	2.00	19.43** *	1.47 A	1.95 C	1.66 B	2.34 D	46.79***
Following the fashion	3.01	2.87	3.13	19.19***	2.84	3.11	19.74** *	2.59 A	3.06 B	3.04 B	3.18 B	6.28***
Diet	2.20	2.00	2.40	41.74***	2.30	2.14	6.01**	2.11 B	2.46 C	1.93 A	2.35 C	15.87***
Skin and clean	3.40	3.17	3.62	56.84***	3.39	3.41	.13	3.05 A	3.69 C	3.25 B	3.57 C	21.35***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Table 8. Classifying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n=598)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Groups		Accepted type (n=140)	Internal type (n=145)	Aware type (n=203)	Unaccepted type (n=110)	F-value
Internalization			4.10 D	3.89 C	2.88 B	2.40 A	441.172***
Awareness			4.03 D	3.08 B	3.41 C	2.32 A	380.822***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와 청결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형이나 기능성 보정옷의 착용 등의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인 중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고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연령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피부관리와 청결관리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외모관리행동이였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여학생이 외모관리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중학교 남학생의 태도가 가장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에 따른 신체비교 및 만족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에 따른 신체비교 및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먼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내면화와 인식요인에 의해 4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그룹 1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고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정도가 매우 높아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140(23.4%)명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그룹 2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는 것은 보통이지만 자기 것으로 내면화 하는 정도는 높아 ‘내면화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145(24.3%)명이 이 유형에 속했다. 그룹 3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 인식은 높게하고 있지만 내면화 하지는 않아 ‘인식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203(33.9%)명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그룹4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낮고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도 낮아 ‘비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110(18.4%)명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에 따른 성별, 연령그룹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행하였으며

Table 9. Difference in general factors among group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n=598)

General factors		Groups	Accepted type (n=140)	Internal type (n=145)	Aware type (n=203)	Unaccepted type (n=110)	χ^2
Sex	Male	289	58(20.1)	52(18.0)	124(42.9)	55(19.0)	25.042***
	Female	309	82(26.5)	93(30.1)	79(25.6)	55(17.8)	
Age group	Junior	233	50(21.6)	46(19.8)	76(32.8)	61(25.9)	20.243**
	High	365	90(24.7)	99(27.1)	127(34.8)	49(13.4)	
Sex * age group	Male*junior	106	19(17.9)	10(9.4)	47(44.3)	30(28.6)	44.091***
	Female*junior	126	30(23.8)	36(28.6)	29(23.0)	31(24.6)	
	Male*high	182	39(21.4)	42(23.1)	77(42.3)	24(13.2)	
	Female*high	183	51(27.9)	57(31.1)	50(27.3)	25(13.7)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결과는 Table 8.과 같았다. 그 결과 성별(p<.001), 연령(p<.01), 성별*연령그룹(p<.001)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있어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 중 인식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내면화형(30.1%)이 많았다. 반면 비수용형(남학생=19.0%, 여학생=17.0%)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중학교(32.8%)와 고등학교(34.8%) 모두 인식형이 많았으며 가장 적은 것은 중학교의 경우 내면화형(19.8%)이었고 고등학교는 비수용형(13.4%)이었다. 성별*연령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남자 중학생은 인식형(44.3%)이 가장 많고 내면화형(9.4%)이 가장 적었다. 여자중학생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유형이 분류되었는데 내면화형(28.6%)이 가장 많았고 인식형(23.0%)이 적었다. 남자 고등학생은 인식형(43.3%)이 가장 많았고 비수용형(13.2%)이 적었다. 여자고등학생은 내면화형(31.1%)이 많았으며 비수용형(13.7%)이 적었다. 전체적으로는 내면화형의 남자 중학생비율이 적었으며 인식형의 남자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사회문화적 외모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다고 한 Lee(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Table 10).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 간에 신체비교의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수용형이 가장 외모비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면화형, 인식형의 순서로 낮아졌고, 비수

용형이 신체비교를 가장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간의 신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으며 내면화형의 신체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인식형의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비수용형이 수용형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신체만족도가 낮은 내면화형은 신체적 외모에 대해 친구들과 가장 많이 비교하며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인식형은 신체비교 또한 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아지고(Lee & Park, 2008),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 청소년이 더 낮은 신체 존중감을 지닌다는 Lee(2013)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간의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았다. 결과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에 따라 모든 외모관리행동 요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형과 보정 요인에 있어서는 인식형과 비수용형보다 내면화형과 수용형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형이나 기능성보정 속옷을 착용한 경험이 있거나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행추구 요인

Table 10. Difference in group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ccording to the comparison and satisfaction of body

Body comparison and satisfaction	(n=598)				F-value	
	Groups	Accepted type (n=140)	Internal type (n=145)	Aware type (n=203)		Unaccepted type (n=110)
Body comparison		3.17 D	2.91 C	2.70 B	2.33 A	26.47***
Body satisfaction		2.85 AB	2.79 A	2.98 B	2.93 AB	2.92*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Table 11. Difference in group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ccording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n=598)

managements of appearance	Groups	Accepted type (n=140)	Internal type (n=145)	Aware type (n=203)	Unaccepted type (n=110)	F-value
Plastic surgery & reforming		2.20 B	2.17 B	1.69 A	1.55 A	31.79***
Following the fashion		3.35 D	3.19 C	2.84 B	2.63 A	30.05***
Diet		2.33 B	2.32 B	2.08 A	2.12 A	4.47**
Skin and clean		3.67 C	3.49 B	3.25 A	3.23 A	12.03***

* p<.05, **p<.01, *** p<.001 Alphabet = Duncan's grouping

에 있어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내면화와 인식이 높은 수용형이 가장 적극적이며 다음으로 내면화형이었으며, 그리고 비수용형이 가장 유행추구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수용형이나 내면화형의 경우 머리손질과 차림새에 대해 신경을 집중하고 수시로 확인하며 유행상품이나 스타일을 규정을 어겨서라도 비수용형 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어트 요인에 있어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수용형과 내면화형은 인식형과 비수용형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감량을 위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살찌는 것은 먹지 않으며 날마다 운동을 하고 이것은 건강보다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의미이다. 피부와 청결요인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수용형은 인식형이나 비수용형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용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손과 발 그리고 교복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피부관리를 위해 기초화장품을 바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수용형과 내면화 형은 외모관리의 모든 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거나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비수용형의 경우는 외모관리에 대해 다른 유형보다 관심이 낮고 소극적이며 덜 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요인보다 내면화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더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 Park(2012)의 연구와 그 결과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적극 수용하고 내면화 정도가 높은 여고생의 경우 신체비교를 많이 하고 신체만족이 낮으며 외모관리행동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2003)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정요구도가 높고 신체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Chung(2011)은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신체만족이 높고 외모관리행동을 더 한다고 하였다. Lee(2013)는 외모관리행동을 의복, 체중, 피부, 헤어, 성형으로 분류하여 외모의 도구성에 대해 수용의지가 큰 경우라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수행의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어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교, 신체만족도,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외모비교와 신체만족도,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청소년을 이해하고 생활지도와 가정교과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분석결과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면화요인과 인식요인이었다.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외모에 대한 현상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보통수준이상이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외모 비교는 보통보다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신체만족도는 보통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비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학교 남학생이 다른 그룹보다는 신체비교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특히 여자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가 낮았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셋째,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은 성형과 보정, 유행추구, 다이어트, 피부와 청결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피부관리와 청결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유행이나 외모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보통 이상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와 성형과 기능성 보정속옷을 착용하는 것은 보통 이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였고, 피부와 청결관리를 제외하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고등학교 여학생은 모든 외모 관리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었고 남자 중학생이 가장 소극적이었다.

넷째,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수용형, 내면화형, 인식형, 비수용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유형에 따른 신체비교와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형과 내면화형은 인식형과 비수용형에 비해 신체비교를 더 많이 하며 신체만족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형은 다른 유형보다 신체비교를 자주하고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성형과 기능성보정의복착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수용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중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피

부관리와 청결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지역 청소년들도 보통이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여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리사회의 외모에 대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학생의 낮은 신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수용형과 내면화형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낮고 신체비교를 더 자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용형과 내면화형은 인식형과 비수용형에 비해 외모관리 행동에 있어서도 모든 요인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여주기 위한 체중감량 다이어트와 성형 및 기능성 보정속옷 착용과 같은 외모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신체만족도가 낮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받아들여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자존감도 낮아 외모비교를 자주하고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신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체만족도가 낮고 외모비교를 많이 하며 또한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모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의 경우 그 영향력과 왜곡된 정보전달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가정교과에서 강조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2차성징과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심을 갖으며 친구들과 자주 비교하고 정서적으로도 발달이 불안정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과 그룹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요즘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수정된 시각자료에 의해 객관적이지 못한 사회적 기준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자주 비교함으로써 부정적인 신체상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으로부터 청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아울러 의생활과 관련된 소비태도 또한 가정교과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참고문헌

- Ahn, N. Y. (2007).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s body consciousness on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Botta, R. A. (1999). Television images and adolescent girls'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9(2), 22-41.
- Brown, B. (2005). *Adolescent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In R. M. Lerner and L. Steinberg(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Hoboken, NJ:Wiley.
- Cho, S. M. & Gho, A. R. (2001). The effect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the comparison of age difference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27-1238.
- Choo, T. G. (2002). Multiple body-image and clothing-benefit sought according to body-cathexi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4(4), 376-382.
- Chosun.com. (2013, 02, 01). *World's No. 1, 'Powers of cosmetic surgery' Korea, because of employment crisis?*. Retrieve October, 13, 2014,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1/2013020101249.html.
- Chung, Y. J. (2013). The meditating effects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girl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2), 27-42.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4), 608-630.
- Dobson, K. S., & block, L. (1992).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base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3-38. New York: Guilford.
- edaily(2014, 09, 20). *9 of 10 people "I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my appearance"*. Retrieve October, 13, 2014, from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862313.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 7, 117-140.
- Fisher, E., Dunn, M. J., & Thompson, K. (2002). Social comparison and body image: An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proces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5), 566-579.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3-115.
- Gulas, C. S., & Mckeage, K. (2000). Extending social comparison: an examination of the united consequences of idealized advertising imagery. *Journal of the Advertising*, 29(2), 17-28.
- Hansen, C. H., & Hansen, R. D. (1988). Finding the face in the crowd-An anger superiority effect-. *Journal of Health Psychologist*, 54(6), 917-924.
- Heinberg, L. J., & Thompson, J. K. (1995). Body image and televised images of thinness and attractiveness: a controlled lab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4), 325-338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ATAQ).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 81 - 9.
- Heinburg, L. J., & Thompson, J. K. (1992). Social comparison:

- gender, target importance ratings, and relation to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 335-344.
- Holsen, I., Kraft, P., & Roysamb E.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depressed mood in adolescence: A 5-year longitudinal panel stud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 613- 625.
- Hwang, J. S., & Kim, Y. H. (2006).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on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3), 143-155.
- Hwang, Y. J. (2007).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esteem, and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iveness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Kim, J. M. & Han, G. H. (2008). The effect of mass media,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BMI on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 eat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6(4), 73-83.
- Kim, Y. & Hwang, S. J. (2008).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the behavior of women for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10), 112-122.
- KOSIS(2012). *Troubled youth issues*. Retrieve July 3, 2014, from http://kosis.kr/customStat/customStat_01List.jsp.
- Lee, J. S., & Han, G. H. (2008). The effects of university woman students' socio-cultural attitudes to appearance on their body image and satisfaction of their physical bodi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2), 153-164.
- Lee, M. H. (2003). A study of appearance behavior and lifestyle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9/10), 1101-1111.
- Lee, M. S. (2008). The effects of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relating to appearance on adolescents'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6), 96-109.
- Lee, M. S. (2013). A study on adolescents' body esteem and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5(2), 43-56.
- Lee, S. G. & Gho, A. R. (2005). Formation models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s as related to pubertal physical grow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3,4), 438-448.
- Lee, S. Y. & Park, Y. S. (2008). Relationship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body esteem, eating attitud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female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6(4), 325-333.
- Lee, Y. H. & Kwon, S. Y. (2010). The effect of TV exposure and sociocultural factors on the process from awareness of body: image to behavioral respons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0(4), 390-424.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Park, H. W. & Chung, M. S. (2011). The influences of appearance concern and body satisfaction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ale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5), 1119-1139.
- Park, K. (2012). Correlations among cognitive ag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7), 756-766.
- Schutz, H. K., Paxton, S. J. & Wertheim, E. H. (2002).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1906-1937.
- Sim, J. E. & Gho, A. R. (1997). Korea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s related to self - consciousness and weight control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8), 1334-1345.
- Song, K. J., & Lee, M. S.(2009).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perceptual, attitudinal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2), 97-110.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Thompson, J. K., & Hirschman E. C. (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 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conception, body image, and self-care pract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139-153.
- Van den Berg, P., Paxton, S., Keery, M. W., Guo, J., & Neumark-Sztainer, D. (2007).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comparison with media images in males and females. *Body Image*, 4(3), 257-268.
- Yoon, S. I. & Wee, E. H.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in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2), 1-13.

<국문요약>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학교급)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유형에 따른 신체비교, 신체만족,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598명의 자료를 결과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PC WIN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Cronbach's α)분석, 요인분석, χ^2 검증, K-means군집분석 t-test, ANOVA(일원변량분석), Duncan's grouping을 실시하였다.

광주 전남지역 청소년들도 보통이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여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수용형, 내면화형, 인식형, 비수용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은 내면화형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수용형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더 낮고 신체비교를 자주하였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에서도 성형과 기능성보정복착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수용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중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피부관리와 청결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외모에 대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외모기준으로부터 청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가정교과 지도 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1월 10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3월 9일